

“2017정권교체, 여성당원 힘으로!”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갖고 ‘정권교체 앞장’ 다짐... 17일 순천대



전남도당 윤명희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당원들이 지난 13일 발대식을 마치고 이개호 도당위원장과 양향자 최고위원, 이종걸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여성위원회(위원장 윤명희)가 13일 오후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2017 대선승리’를 결의하는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2017 정권교체, 여성당원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발대식에는 양향자 당 전국여성위원장, 이개호 도당 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정숙씨,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김혜경씨와 여성당원, 지역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송영길·이종걸 의원, 특별강사로 초청된 박혜자 전 의원(광주서구갑) 등도 참석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우리 당 호남지지율이 최근 압도적 1위를 회복한 것은 온갖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당을 지켜주신 여성당원들 덕분”이라며 “우리 전남이 정통야당 민주당의 뿌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성당원들이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명희 여성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1천만 촛불민심은 사회적 적폐청산과 국가대개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승리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전남 여성 당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권후보 부인 두 사람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호남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한 여성당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박혜자 전 의원(광주서구갑)은 “여성이 정치참여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깨어 있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반드시 대선승리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전남 지역현안 발굴,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

도당-전남도, 첫 당정회의 갖고 정책 협조 강화기로... 16일 영산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라남도 민생현안 당정회의가 지난 16일 오전 영암군 삼호읍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이낙연 지사, 당정 주요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 기사 및 사진 3면>

당정은 이날 권역별 주요 정책공약을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당정 협조 체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는 도당에서 이개호 위원장,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신정훈(나주·화순), 박병중(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10개 지역위 위원장과 도당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또 전남도에서는 이낙연 지사와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서은수 농림축산식품국장, 임채영 경제과학국장 등 민생관련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이 올해 사상 처음 예산 6조원 시대를 열고, 일자리 대상까지 받은 것은 이낙연 지사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라며 “이런 열정을 이어받아 대선승리의 발판을 전남에서 열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
(담양·함평·영광·장성)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정유년(丁酉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인 2017년 새 해를 맞아 도민과 당원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민심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거대한 ‘촛불혁명’으로 타올랐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국민의 촛불행진은 병신년 재야의 마지막 날에도 타올라 ‘1천만 촛불’로 이어졌습니다. 새해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더 이상 광장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경제실정으로 국민들의 삶은 피해해만큼 피해해졌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인사탕평 약속은 허언이었고, 무능한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는 사이 경제와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남북관계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대장정의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 당의 ‘뿌리’이자 ‘보루’인 전남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희망을 주는 정당, 당원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도당을 만들겠습니다. 도민과 당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제1당으로 도약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텃밭’이자 ‘심장부’인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큰 회초리를 맞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계파간 갈등으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뼈 아픈 자성과 반성을 합니다. 호남민심이 우리당을 불신하게 된 데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더욱 더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강한 야당,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당원·도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2017년 정권교체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당원·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 새 해가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불러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광장 2017. 01. 20 (제17호)

발행인 | 이개호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광주·전남 시·도당 5·18민주묘지 합동참배

참배 후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정권교체 결의대회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과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지난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합동참배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참배 후 민주주의 문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5·18 민주열사들의 정신계승과 함께 정권교체를 다짐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떡국을 나누며 2017년의 각오를 밝혔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당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우리 당 대선후보들의 지지율은 타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이는 국민만을 보고 달려온 결과로, 앞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5·18정신으로 대변되는 광주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정당"이라며 "2017년 정권교체와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도당, 신규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가져

지난달 21일...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60여명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이춘웅 노인위원장과 윤명희 여성위원장 등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신규 당직자 60여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김중현(목포지역위원장)·박병열(여수수리지역위원장) 상임부위원장과 김재남(전 장성군의회 의장) 부위원장, 김진(청년)·이재한(장애인)·이정원(노동)·김

광덕(농어민) 위원장과 김형근 지방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신규 당직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도당 위원장은 수여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신규 당직자들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뷰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

“정권교체와 좋은 정부수립 위해 모든 노력 다할 터”

“필요하다면 야권통합 적극 추진해야”... 2일 국립 5.18민주묘지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해를 맞아 지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달아오르고 있다”며 “뜻과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고 좋은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 통합과 관련, “통합 문제는 그동안 야권의 전반적인 지평을 놓고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통합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뜻을 모아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상대의 부정적 인식도 고려를 해야 하며, 앞으로의 대선은



정치적 상황이 복잡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일지, 3자, 다자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당 합동 참배행사를 마친 뒤 민주주의 문 앞에서 2017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함평천지 한우 판매처 (061)323-3366

함평천지한우는 Your Diet Needs Selenium 셀레늄을 섭취하라!

셀레늄이 함유된 기능성 한우입니다

셀레늄 섭취는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서 소개한 오래사는 방법 30가지중 하나로 셀레늄은 우리몸에 있어서는 안될 필수 영양소로서 세포를 보호해주고 여러가지 효소를 구성하는 영양성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영양소로 함평천지한우고기는 셀레늄과 함께, 고기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몰레익신과 리놀레익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함평천지한우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함평군 | 함평축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남도청, 2017 첫 당정회의

“ 남해안철도 전철화·에너지신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 ”



1면 '당정회의'에서 이어집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당정회의 인사말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이개호 도당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SOC 분야 예산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처음 예산 6조원 시대를 연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가 열악한 대내외 환경과 악재를 딛고 수상한 일자리대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며, 공직자에 자신감을 준 것이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주말의 여수수산물시장 화재와 관련, “생활안정자금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임시시장 개설 후 인근 공직사회의 설 대목 시장

이용 등을 독려해 반드시 빠른 재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차원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의 지난해 주요 도정 성과와 반성, 새해 도정 운영방향, 민생현안 과제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토론과 질문답변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영록 위원장(해남·완도·진도)은 “남해안철도 건설사업 전철화 추진을 놓고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병중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도 77호선이 남해안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밑그림을 잘못 그려 인근 군도와 지방도의 국·지방도 승격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대수 위원장(여수갑)은 여수 경도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 관리감독을, 김종현 위원장(목포)은 목포 신항 확충 및 서남해안 관광기반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은 권역별 주요 정책공약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에너지 신산업을 전남의 차기 미래전략산업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지사는 △남해안철도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차질없는 건설 △국도 77호선을 ‘전라도 천년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남해안 관광의 중심 축으로 개발 등

을 약속하고 경도 관광개발의 경우 협약서에 미이행금 보상 조항 명시 등을 추진했다고 답변했다.

또 목포권의 경우 수산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 분원유치와 경비행기 항공업체의 본사 이전을 통한 다도해권 항공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경비행기를 활용한 다도해 항공 관광비용은 1인당 6만원 정도여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며 “조만간 여수 일원에서 항공관광 시대가 먼저 시작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 신산업을 광주까지 확대해 검토중이며, 도청 내에 100명으로 T/F를 구성, 분야별 공약으로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 핵심당원 연수' ... 보성 다비치콘도

도당은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핵심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도당 핵심당원 연수를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개호 도당 위원장, 홍종학 전국회의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이 나와 최근 정국과 한 국경제 새판짜기 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정권교체’를 주제로 “국정농단에 대한 100만 촛불민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솔한 반성을 듣지 못했다. 이제 법에 따른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매년 재정적자가 30조에 달했는데 30조는 100만명의 고용이 가능한 돈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개호 위원장 등 “정권교체” 역설 김준형 교수 ‘트럼프의 미국,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특강



며 “무능한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불평등을 완화해 재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재벌의 사내 유보금만 700조에 달하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하여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각각 ‘트럼프의 미국,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정권교체와 전남도당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과 김종현(목포)·송대수(여수갑)·박병열(여수을)·조충훈(순천)·신정훈(나주·화순)·김재무(광양·곡성·구례)·박병중(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과 당원, 당직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대표, “호남의 미래 민주당이 함께할 것”

당 호남비전위, 광주 현장회의 성황리에 마쳐

당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당대표)는 지난 12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현장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양향자(전국여성위원장)·김춘진(전북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안희정 충남도지사(중앙당 차장은 지방정부위원장),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국회 예결위),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 안규백 중앙당 사무총장, 윤호중 중앙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연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 신창현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석 당대표 특보단장, 김성주·신정훈 원내대표 호남특보, 박혜자(광주서구갑 지역위원장)·김영록(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위원장) 전 국회의원, 최충민 제1사무부총장 외 사·도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주 호남비전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인사말과 이

개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도당 위원장)의 2017년도 호남 예산확보 성과 보고가 있었다. 또 안희정 차장은 지방정부위원장(충남지사)이 참석해 지역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당대표 출마 때 약속했던 호남비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호남예산 책기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대선후보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호남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대선후보가 협력해 새누리당 정권 들어 최악으로 떨어진 호남의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 마련도 약속했다.

이어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호남민심을 경청하며 호남의 미래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보고한 2017년도 광주·전남·전북 현안예산 확보내역은 자동



차 100만대 차량기지 조성사업,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 새만금 사업 등 총 134건으로 광주 622억8,100만원, 전남 1,923억2,300만원, 전북 744억7,500만원을 증액시켰다. 호남비전위는 2017년도 호남예산 확보를 위해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와 지난 10월 25일 예산협의 간담회를 가진 후에도 꾸준히 교류해온 바 있다.

덧붙여 김태연 국회 예결특위 간사는 “당의 노력으로 전남은 드디어 6조원의 시대를 열었고 전북은 사상 최대의 예산 확보, 광주는 작년에 비해 5.5%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오후에는 추 대표 등 현장회의 참석자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 평동산단 입주 중소기업 대표단 31명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 대표단은 “진짜 힘든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호남 지역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가 발전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단은 한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호남비전위원회 구성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호남비전위는 추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사항으로 지난 10월 10일 출범했다.

호남비전위, 호남발전 예산 확보 현황

광주·전남 국비 4천376억원 증액... 호남비전위 최대 현안 ‘무안공항 활성화·남해안철도’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당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요청한 현안사업 총 104건에 대해 4,376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전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노선 사업비가 신규 반영 됐고,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비가 반영돼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노선 사업은 전남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환승의 편리성과 이용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당초 정부예산안 75억원에서 655억원이 증액된 총 730억원이 반영됐다.

전남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노선 조기추진 655억원(증액:75억원→730억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550억원(증액:1,561억원→2,111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60억원(증액:820억원→880억원) ▲영산강 IV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0억원(증액:240억원→270억원) ▲순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27억원(신규/총사업비 290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성황지구 연결도로 5억원(신규/총사업비 144억원) ▲고흥 비위생매립장 정비 11.5억원(신규/총사업비 23억원) 등 74건, 3,791억원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사

업명: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은 광주시가 403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추미애 당대표를 중심으로 호남비전위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13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광주시 신규반영 및 증액사업 예산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첨단산업 관련 11억원(신규/총사업비 430억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30억원(증액:19억원→49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60억원(증액:820억원→880억원) ▲초미세먼지대응 나노필터 개발 20억원(신규/총사업비 275억원) 등 30건, 585억원이다.

또한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지역 등 주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예산 150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호남비전위는 호남 현안 및 예산을 당대표가 직접 챙기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10월 25일 광주·전남·전북과 2017년도 예산협의 간담회를 가진 후 꾸준히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왔다.

호남비전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예결위원인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국비예산 확보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호남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 여수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현장 찾아

“빠른 시일 내 재기토록 모든 지원 강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수시 교동 수산물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수 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주철현 여수시장 등과 함께 피해 상인 간담회를 갖고 “설 대목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남도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복구자금 등을 긴급지원해 설 대목에 임시시장을 개장하여 빠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수시와 인근 지역 공직사회가 설 대목장을 수산물시장에서 먼저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여수 수산물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2시21분께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층 점포 119개 중 81개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14.04.16

세월호 참사 1000일

은 국민이 세월호를 가슴에 묻고 지난 1,000일을 천년처럼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304명의 희생자, 그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실을 가리려 할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욱 또렷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조속한 통과와 선제 조기 인양을 위해
제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박근혜-노무현 정부 호남인사 등용 실태 비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지역균형발전’, ‘탕평인사’ 외면

18개 부처 호남출신 각료 단 1명, 참여정부는 ‘빅4’ 자리 포함 26%

박근혜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호남 출신 각료는 이기권 노동부장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빠진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 새 비서실장으로 호남 출신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했으나 국면전환용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단(비서관 이상)’ 50명 가운데

박 대통령, 최순실 사태 위기 물러

호남출신 한광옥 비서실장 등용

‘국면전환용 물타기’ 비난 높아

데 25명(50%)이 영남 출신인 반면 호남은 1명(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경우 총리와 장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 4’를 포함한 주요 직위 95명 가운데 호남은 26.3%(25명)을 차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빅 4’인 4대 권력기관 자리에 김종빈 검찰총장(여수) 등 모두 호남출신을 중용한 바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호남의 중용’을 통한 국민대통합과 탕평인사를 실현한 셈이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호남을 외면했고, 정권이 뿌리째 흔들리는 최대 위기에서도 위기 돌파용 ‘꼼수’를 썼다.

한 마디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과 탕평인사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권리당원 최모씨(49·순천)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단행한 개각 인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호남을 두 번 죽이는 꼼수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당시

호남인재등용은 참여정부가 가장 높았습니다.

- ✓ 역대 어느 정부보다 중앙정부 주요요직에 **호남인사가 가장 많이 중용**
- ✓ **총리, 장관, Big4**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를 포함한 주요직위 95명 가운데 **호남은 26.3%(25명) 차지**
- ✓ **대구경북 17.9%(17명), 부산경남 18.9%(18명)에 비해 월등**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할 수 없었던 호남의 중용입니다.

박 ‘호남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역대 정부 중 호남 소외가 가장 심했고, 마지막까지 특정 지역과 사익만을 추구하는 농단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하는 등 호남 출신을 잇따라 등용했으나 ‘최순실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호남을 농락했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됐다. 박 내정자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고, 임 내정자는 야권의 반발로 인준 청문회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호남출신 인사

입법, 사법, 행정부와 4대 권력기관에 모두 호남출신 임명

입법
국회의장 - 김원기(전주) 임채정(나주)

사법
대법원장 - 이용훈(보성)

행정
국무총리 - 고건(군산) 한덕수(전주)

권력기관
검찰총장 - 김종빈(여수)
국정원장 - 김승규(광양)
감사원장 - 전윤철(목포)
국세청장 - 이용섭(함평/건교부장관/행자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완(장성)
인사수석 정찬용(영암) 김완기(곡성)
민정수석 전해철(목포)
홍보수석 이백만(진도) 윤승용(익산/대변인)
사회조정비서관 민형배(해남)
사회정책비서관 김성환(여수)
참여혁신수석 박주현(군산)
국정홍보처장 정순균(순천)
경호실장 김세욱(장흥)

장관

정동영 통일부(순창)	윤영관 외교부(전북 남원)
천정배 법무부(신안)	김승규 법무부/국정원장(광양)
조영길 국방부(영광)	김장수 국방부(광주)
이용섭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장(함평)	김명근(전주)
정동채 문광부(광주)	허상만 농림부(순천)
김영진 농림부(진도)	정세균 산업자원부(신안)
임상규 농림부(광주)	장하진 여성부(광주)
이상수 노동부(여수)	장승우 해양수산부(광주)
강동석 건설교통부(전주)	
장병완 기획예산처(곡성)	

각 지역위원회 신년 시무식·단배식 개최

당원 화합·2017 대선, 재·보선 승리 등 결의

도당 산하 각 지역위원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과 신년 단배식 등의 행사를 갖고 정권교체와 상반기 재·보선 승리를 결의했다.

여수갑지역위(송대수 위원장)는 지난 6일 송대수 위원장과 주철현 여수시장 그리고 주요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상반기 재·보선과 대선승리를 결의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상반기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강조하였다.

순천지역위(조충훈 위원장)는

지난 4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조충훈 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갖고 당원 화합과 대선승리를 결의했다.

나주·화순지역위(신정훈 위원장)는 지난 3일 주요 당직자, 당원 등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김천일 장군의 사우를 참배하고 정권교체 결의를 다졌다.

광양·곡성·구례지역위(김재무 위원장)도 지난 5일 도의원과 시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단배식을 갖고 대선승리 결의를 다졌다.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이

개호 위원장)는 지난 3일과 4일 영광축협한우프라자와 음식점 등에서 지역별 신년 인사회와 단배식을 갖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대선승리를 기원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박병중 위원장)는 지난 27일 보성에서 중무식을 겸한 신년 인사회를 갖고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대선승리를 기원했다.

해남·완도·진도지역위(김영록 위원장)도 지난 12일 진도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고 정유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박근혜 퇴진 광주·전남국민주권운동본부’ 출범

11월 23일 구 도청 앞 5.18광장에서 출범식



‘박근혜 대통령 퇴진 광주·전남 국민주권운동본부’ 출범식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광주 금남로 구 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본부장을 맡은 추미애 당 대표와 이개호 도당 위원장, 이형석 시장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당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퇴진운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발족을 의결함에 따라 출범했다.



문재인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

“설 명절, 호남 ‘밥상 민심’을 잡아라”

당 대권후보들, 설 앞두고 호남 민심잡기 경쟁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설 연휴 동안 귀성객들이 고향에 내려와 지역 민심이 누구를 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명절 민심’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1월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5일 여수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22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리는 지지모임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한다. 출범식은 창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대한민국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문 전 대표와의 대화, 방송인 김제동의 ‘간죽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다

음날 나주 혁신도시 16개 이전기관 관계자, 혁신도시 주들과의 간담회도 실시한다.

문 전 대표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13일 순천에서 열린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출범식을 찾은 등 지난해부터 전남을 수시로 찾아 지역인사들을 만나는 ‘호남 프랜들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남 방문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광주와 진도 팽목항, 목포, 해남, 나주를 순회하며 특강과 재래시장 방문 등의 민생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SNS 손가락 혁명군 출범식을 갖고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도 치른

데 이어 19일에도 광주와 장성을 방문, 지지자들을 만난다.

이 시장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전남 여성위원회 출범식에서 얼굴을 내밀고 이 시장의 호남 공들이기에 보조를 맞추는 등 내조를 강화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를 통해 “분열과 고립의 정치로부터 광주·호남정신을 지켜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지사는 앞서 지난달 25일 팽목항, 27일 호남비전위 광주 현장 회의 참석 및 순천대 특강, 28일 광주시 초청 공무원 특강 등 숨가쁜 호남행보를 계속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4일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한 뒤 목포 지역 당원간담회, 동부시장 및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순천 촛불집회 참석 등 숨가쁜 호남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1박2일 일정으로 전남과 광주를 방문, 망월동 고 백남기 농민 묘지참배, 무등산 등반 등을 실시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22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정국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 뒤 사회복지사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설 대목인 오는 25일 지역언론과의 간담회를 위해 다시 광주를 찾는다.

전남도당 22개 시·군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퇴진’등 요구



‘비선실세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특검도입 등을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전남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도당에 따르면 각 지역위원회는 당 소속 지역위원장과 도의원, 시·군의원, 당직자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역과 터미널, 주요 교차로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한 달여 동안 실시했다.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의 경우 첫날인 지난 2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동광양 권부두 4거리와 광양읍 인동로터리에서 김재무 위원장과 당원들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아웃’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는 김재무 위원장과 이용재·김태균·강정일 도의원, 강승만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번갈아가며 참여했다.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오전 8시부터 여수 문수동 4거리에서 송대수 위원장, 전창근 시의원, 백인숙 전 시의원이 ‘별도의 특검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상우 시의원과 당직자들도 같은 시간대에 서교동 로터리와 돌산대교, 터미널 앞 등에서 1인시위에 나서는 등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또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는 담양 백동4거리와 장성역, 영광우체국 앞, 함평 검정다리 앞길에서, 영암·무안·신안지역위는 남악 도청 앞 등지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광양·곡성·구례지역위 강승만 사무국장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2선으로 퇴진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의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지역위원회, 박근혜 퇴진 서명운동

“국민의 힘으로 퇴진하는 날까지...” 도민 1만여명 참여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도당 산하 10개 지역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을 역과 터미널 등 도내 다중집합장소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도당에 따르면 오병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들이 지난 12월 1일 목포터미널에서 3시간 동안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달 24일과 25일 등 3차례에 걸쳐 700여명의 퇴진 서명을 받았다.

또 나주·화순지역위와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는 지난 11월 30일 영광터미널과 영산포 시장에서 지역위 당직자와 당원 등이 서명운동에 나서 6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지금까지 도내에서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오병현 도당 사무처장은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대통령 즉각 퇴진은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퇴진을 결정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당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구충곤 화순군수

“대형프로젝트 유치 강점 활용 경제활성화 매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산업 집중 육성
감성복지서비스·농업인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2017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잘사는 화순건설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어두운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유치 등 강점을 극대화해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미생물실증지원센터)의 본격화, (주)녹십자 추가 증액투자, 전남대 의대 화순 이전 마무리, 호남119특수구조대 안착, KTR 동물대체시험센터 설립, 화순 식품산업단지 준공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대 군정 운영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산업 집중 육성 ▲군민이 체감하는 감성복지서비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을 설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836억원이 투입되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에 나선다. 우선 22억원을 들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백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화순적벽 등 '화순 8경'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과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 유커 유치를 위해 정월성 유적지, 주자묘 등 중국 관련 콘텐츠를 연계하

는 등 매력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하는 데도 주력한다.

화순적벽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고 고인돌유적지, 서유리 공룡화석지, 운주사 등 지질명소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한다.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등 공교육 활성화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생산과 판매,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6차산업의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과 농산물 판로 확대, 비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등 다양한 농가 소득정책도 확대 추진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구 군수는 “새해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 등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한 강점을 활용해 군민이 행복한 명품화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정월성 유적지 정비 중국인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화순군이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월성 선생의 유적지를 정비하는 등 정월성 선생 유적 관광지원화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1억원을 들여 정월성 흉상 주변 경관조명 및 경관조명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정월성 선생의 모교인 능주초교 외벽에 타일벽화와 흉상 주변 진입로 정비 등을 준공한 것이다. 흉상 주변에 담쟁이를 식재하고 바닥은 점토블럭으로 교체하고, 흉상 진입로 주변에는 가로등을 설치했다.

또 10억원을 들여 능주면 관영리 성장지터 일원에 중국인 관광명소화사업도 추진한다.

전시관 건립을 비롯해 주차장과 진입로 주변 정비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1억 2천만원을 들여 부지 매입을 마쳤고, 앞으로 10억원을 확보해 주차장과 진입로 부지 매입에 나서 전시관 건립공사를 2018년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정월성은 1917년(3세)부터 1923년(9세)까지 능주면 관영리에서 성장하며 능주보통학교 2학년까지 다녔다. 1933년 항일 운동을 위해 형(의은)을 따라 상해로 건너가 의열단 활동을 시작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

중국인민해방군가, 연안송 등 360여곡을 작곡해 1988년 중국 정부 공식 군가로 지정된데 이어 2009년에는 신중국창건영웅 100인에 선정되는 등 근현대 중국 최고의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월성 선생의 성장지를 복원해 한중 우호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주자묘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안병호 함평군수

“군민의 삶 실질적 도움되는 사업에 집중”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 창출
주민생활편의 증진 중점 투자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해 거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안병호 군수는 “과거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안 군수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인과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군민소득을 창출하는 체험관광 활성화, 주민생활편의 증진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농축산업과 제조·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역동적인 기업도시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동함평산단 입주계약 체결 기업들이 조속히 공장을 짓고 가동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전용산단이 될 빛그린산단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선분양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국도 22호선까지 확포장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직거래시스템 업그레이드 △신광노인복지센터 건립 △함평천지종합복지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성 △장애인 공중목욕장 정비 △장애인 임대 주거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

선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941억원을 투자해 △통합함평중, 통합거점고 건립 △

함평골프고 이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

또 △함평읍 내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함평5일시장 현대화 사업 △손불 학산-주포 재난대피 해안도로 개설 △돌머리관과 주포관을 연계한 힐링 휴양타운 조성 △엑스포공원 내 전문문화유물을 활용한 테마전시관 확충도 추진한다.

이밖에 △함평자연생태공원~상해임시정부청사~해보 용천사~대동담 생태역사체험 관광벨트 조성 △수산봉~엑스포공원 습지~함평천 매화꽃길~영산강 관광벨트 조성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사업 △청림 마일리지제, 정책실명제, 행정협업 포인트제 등 실효적 평가체제도 구축한다.

안 군수는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군민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직자에게는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는 가는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다. 자기 그릇을 키워야 함평이 발전한다”며 “올 한해 그릇을 키우는 데도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함평군 지난해 수상실적, 공모사업비 ‘역대 최고’ 기록

함평군이 지난해 청렴한 군정수행과 탁월한 업무능력 발휘로 민선 5·6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남도 등 각급 기관이 시행한 평가에서 36개 부문을 수상해 72억4800만원을 받았다. 이는 민선5·6기 7년간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이다. 특히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건

전한 재정지출로 알뜰살림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총 6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도내 17개 군 중에서 2년 연속 1위를 당당히 차지했으며, 22개 시군을 합한 종합 순위도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민선5·6기 수상 및 공모사업 현황 (2016.12.23.현재)

구분	기관평가	공모선정
계	163개 부문, 101억2900만원	107개 사업, 4696억7800만원
민선 5기	소계	41개 사업, 2585억1700만원
	2010	8개 사업, 591억5000만원
	2011	12개 사업, 839억3200만원
	2012	19개 사업, 350억8600만원
	2013	12개 사업, 803억4900만원
민선 6기	소계	66개 사업, 2111억6100만원
	2014	34개 사업, 506억8400만원
	2015	18개 사업, 231억4100만원
	2016	14개 사업, 1373억3600만원

촛불민심 보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다는 사실 실감 우리당이 정권교체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할 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가문란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서민경제는 파탄나는 등 대한민국의 운명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난 세에는 위기를 극복할 큰 인물이 그리운 법. 대선을 앞두고 과거 IMF 국난을 극복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정치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본지는 '김대중 정신 계승회'를 만들어 평생을 김대중 정신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운동을 벌여온 이준웅 도당 노인위원장을 만나 정신 계승회를 만든 계기와 성과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대중 정신 계승회' 조직 평생 연구·계승 운동 펼쳐

- 2017년 새해를 맞아 전남도당 노인위원장으로 인사 말씀과 새해 희망을 밝혀주신다면?

“정유년 새해 도당의 이개호 위원장님 및 당직자 그리고 전 당원들이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서 전남이 다시 민주당의 성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 이번에 도당 노인위원장에 당선되신 소감은?

“2016년 12월21일 임명장을 받으며 올해 정권교체를 위해 본인이 마지막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뜻 깊게 생각한다. 또한 저를 선택해주신 도당 운영위원회와 당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애당심이 대단하신 원로당원이신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약칭 DJ) 정신계승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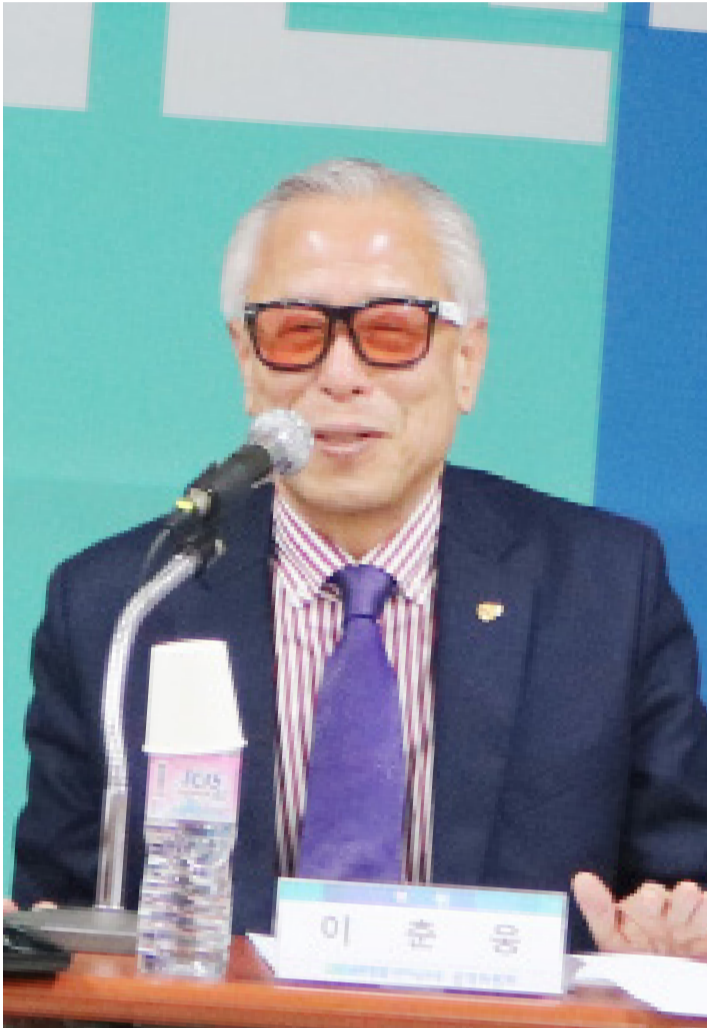
“DJ는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DJ의 정신이 살아있는 당이고,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그분의 정치적 사상을 계승한 정통야당으로서 내가 애당심을 갖고 당을 지켜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DJ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자료 수집가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DJ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1960년대 목포에서 세무공무원에 재직하다 DJ를 만나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돕다 신념과 뜻에 반하여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품었다. 서른 살에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DJ의 정치적 신념과 뜻을 같이하고자 선거 운동 및 정당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45년 정도 되었다. 그 후로도 일편단심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정신계승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 정신계승회를 결성하게 된 동기와 현재 운영상황은?

“1963년 목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그 뜻과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30년 전 당시 선거운동을 같이한 동지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세월이 가다보니 벌써 70대에 들어선 나이에 하나 둘 고인이 되어 회원이 줄어들었다. 남은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던 중 “목포 사람들치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



“

계승회에서 발간한

‘김대중 대통령 역사연구’ 책자를 통해 소개한 자료... 빛바랜 사진 1 장에 불과하지만 특유의 자신만만한 대담한 표정의 연설모습이 살아 있다

”

경하고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말에 주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추가 영입했다. 작년 봄 목포역 인근 건물로 계승회 사무실을 옮기고, 마음을 같이하는 42명의 회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 DJ 관련 자료를 다량 수집하셨는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료는 무엇인가? 또 DJ와의 숨은 비화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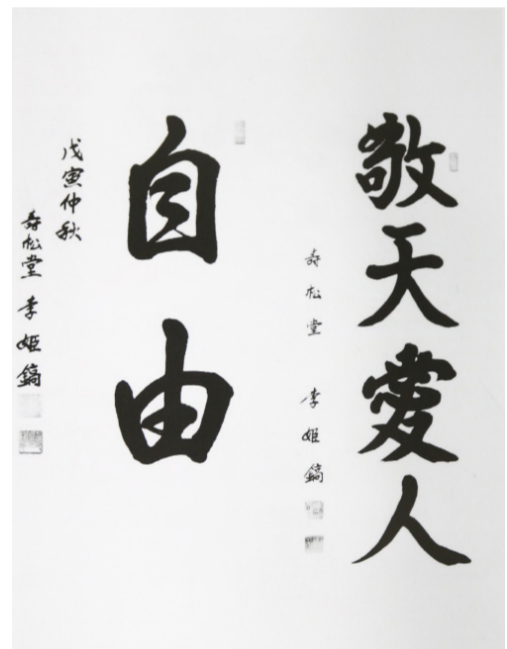
“계승회에서 발간한 ‘김대중 대통령 역사연구’ 책자를 통해 소개한 자료로 국내에 단 1장 밖에 없는 귀중한 사진이 있다. DJ가 만 36세인 1959년 강원도 인제의 제4대 민의원 재선거 출마 당시 거리 유세 사진이다. 이 사진은 DJ 죽이기에 나섰던 군사정부가 5.16 쿠데타 후 ‘빨갱이’를 도왔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자 인제를 떠나 도피생활을 한 당시 선거참모 신모씨의 아들로부터 입수했다. 빛바랜 사진 1장에 불과하지만 특유의 자신만만한 대담한 표정의 연설모습이 살아 있고, 군사정부의 정적 탄압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스토리가 있어 사료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예전 김홍일 전 의원이 권노갑 전의원에게 ‘형님’이라 호칭하는 것을 보고 DJ가 “16년 차이는 아저씨라 불러야 맞다”며 호칭을 정해준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DJ는 서예에 조예가 깊었는데 주변에서 이희호 여사의 붓글씨를 보고 DJ의 붓글씨 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했



DJ 강원도 인제 민의원 선거 유세 모습



이희호 여사의 서예작품



이희호 여사, 김홍일 전 의원 부부와 함께

다. 그러자 이 여사는 “큰 일을 하실 분보다 더 나올 수 없다”며 그 후로 붓을 잡지 않았을 만큼 극진히 남편을 예우한 것도 소개하고 싶다.”

-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대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국정농단에 분노한 1천만 촛불민심을 보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했다. 40년의 정당생활과 여러 번의 대선을 경험해본 바 올해 정권교체는 확실하다. 우리당이 그 선봉에서 설 수 있도록 나 역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내 대선주자들이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선출되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지 당원과 나머지 후보들이 전력으로 함께 해야 꼭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당원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대업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글·사진 = 김양규 부대변인

한화갑 ‘대권행보’나 ‘당 대표’나... 양자택일 요구

당 대표 경선 출마·장성민 전 의원 공천 갈등 표면화 예기치 않은 DJP 공조 파괴... 한광옥 대표체제 불리와

1998년 12월 권노갑 전 위원이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을 때 김종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신주류는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며 귀국을 반대했다. 전반적인 여론도 귀국 반대 쪽이었다. 고민하던 한화갑 전 위원은 DJ에게 “권 전 고문의 귀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DJ가 “자네는 정치를 너무 몰라”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권 전 위원은 양갑 갈등이 불거진 뒤 “그때는 한 전 위원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줬지”라며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 권 전 위원의 귀국은 권력 내 역학관계를 또다시 바꾸어버렸다. 힘은 급속히 권 전 위원 쪽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힘의 반전은 전적으로 DJ의 의중과 관련이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석에서 “김 전 대통령이 권 위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70%라면 한 위원에게는 30% 정도 배려한다”고 전했다.

권 전 위원의 영향력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이었다. 한 전 위원이 초반에는 호남 지역 공천에 관여했으나 나중에는 권 전 위원의 수중으로 완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위원계로 분류된 장성민 전 의원 공천을 놓고도 심각하게 대립했다. 권 전 위원과 김옥두 전 의원은 강경하게 반대했다. 장 전 의원이 끝내 공천받긴 했지만 동교동 구파는 공천과 총선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권 전 위원은 선거대책위 고문으로 임명돼 당사에 출근하면서 실권을 장악해갔다.

당시 수도권 의 한 원외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이 막판에 이상해진 것은 권 전 위원의 개입 이후부터였다”고 말했다. 386학생운동권의 과다한 공천, 전문가 집단의 소외, 한영애-김봉호씨 등 일부 구 정치인의 재공천 등이 동교동 구파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았다는 것이다. 권노갑은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했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던 한화갑은 ‘권 전 위원 밑으로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리더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2000년 최고위원 경선은 한화갑의 고민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온 계기가 됐다. 권 전 위원과 김옥두 전 의원은 초반에 한화갑의 최고위원 출마 자체를 반대했다. 이들은 전대 연기를 주장했고, 나중에는 권노갑이 직접 출마를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마침내 권노갑이 경선 과정에서 이인제 의원 등을 지원하며 한화갑의 득표를 막으려 하자 한화갑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며 권 노갑을 정면으로 몰아붙였다. 양 진영은 서로 “이젠 두 사람 관계가 끝”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한화갑은 “이번 경선을 계기로 동교동계에 새로운 별이 뜨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권노갑측은 “터무니없는 욕심을 내고 있다”고 못마땅해 했다.

난감한 것은 청와대였다. DJ는 여러 차례 단합을 주문하고, 때론 화를 내기도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2000년 6월 29일 동교동 1세대 3인방이 만나 “영원한 형제애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경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당정개편 과정에서도 청와대는 여러 차례 단합을 요청했다. 권 전 위원이 한 달여 동안 해외여행을 끝내고 9월 4일 돌아오자 한 전 위원은 공항으로 직접 영접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동교동계가 단합할 것을 주문했지만, 경선과정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1998년 12월 권노갑 전 위원이 귀국 의사를 전해왔을 때 김종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신주류는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며 귀국을 반대했다.

한광옥 전 대표는 2001년 9월 11일 취임 뒤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미 이런 것

(당정개편)을 다 구상하고 계셨다.

이것(임동원 장관 해임안 파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가면서 단합을 과시했다.

두 사람과 김옥두 전 의원은 이날 밤 다시 심야 회동을 가졌다. 권 전 위원은 이미 청와대와 교감을 끝낸 상태였다. 권 전 위원은 한 전 위원에게 “대권포기를 전제로 한다면 대표로 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를 확대해석해 동교동 구파가 새 대표에 한화갑 전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교동 신-구파의 결속이 당정개편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분석까지 곁들여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위장화해’에 불과했다. 동교동 구파는 대권행보나, 대표냐를 두고 한화갑에 선택을 강

요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였다.

한화갑은 “조건이 붙은 대표라면 생각도 미련도 없다”고 치고 나왔다. 또 “공민권을 제약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9월 6일 한 전 위원과 문화상 등 신파 측 의원들이 긴급히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서 몇 명은 “기회가 왔을 때 대표를 받으라”고 설득했으나 한화갑은 대권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이는 끝까지 구파의 지원을 장담할 수도 없는 데다 ‘소탐대실’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시 국면에서 대표를 맡으면 대권행보에 지장을 주고 당내 견제에 걸려 생명이 길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전 위원측 관계자는 “날개를 접고 대표를 맡으면 그 순간 허세대표가 될 뿐이고, 대권행보를 하면 대표를 주지 않겠다니,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록 대표로 발탁되지 않았지만 대권행보 공개 천명 계기로 작용한 만큼 불리할 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당이 어려운 시기에 그가 당과 대통령보다 ‘사심’을 우선시했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당을 추스를 수 있다면 조건 없이 대표를 맡는 게 순리였다는 것이다. 물론 구파가 한 전 위원에게 대표를 줄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대체로 권 전 위원이 처음부터 한 전 위원의 대표 발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의 대권의지를 꺾으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한광옥 전 대표는 2001년 9월 11일 취임 뒤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미 이런 것(당정개편)을 다 구상하고 계셨다. 이것(임동원 장관 해임안 파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광옥 전 대표체제가 2001년 12월쯤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기치 않은 DJP 공조 파괴로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는 의미로 요약됐다. 송승환 경기대 초빙교수

당원
논단

이전투구(泥田鬪狗)



서재완
해남 완도 진도 지역위원회
정책실장

깜짝 놀랐다. 야당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다. '개혁보수'라는 어정쩡한 스탠스로 신당을 준비 중이었던 새누리 탈당파 들으라는 듯 정권교체보다 반문재인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정확히 옳기면 이렇다.

지난 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비박도 되고 반기문한테도 문 열어놓는 상황에서 친문은 안 되냐? 정권교체가 목표라면 결국에는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패권주의가 만연돼 있다고 한다면 정권교체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야권통합 없이 정권교체를?

그리고 이튿날 부랴부랴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첫 번째 임무는 정권교체"라며 "인터뷰 전후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방송사에 전화를 드려 다시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정권교체라는 것은 상식이지 정권교체 안 해도 좋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정권교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문과는 연대도 없고, 민주당과의 통합도 없다"고 못박았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이구나 싶다.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자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국민의당으로 모두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솔직히 야권 통합 연대 보다는 비박신당 '바른정당'과 통합하여 YS의 3당 통합과 같은 '신 새누리정권'을 창출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것

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결코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호남 목표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정권교체에 나서라'는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었을 뿐이다. 그 증거는 선거 이후의 지지율 변화가 보여 준다. 백번 천번 물어봐도 호남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를 갈망한다. 오죽했으면 그의 지역구 여수시민들조차 '주승용 사퇴'를 촉구하고 나왔을까?

최우선 가치는 정권교체

변방의 야전 사령관 이성계는 조선 건국 후 조선팔도민의 특징에 대해 정도전의 생각을 물었다. 정도전은 "경기도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미인과 같이 경중미인(鏡中美人), 충청도 사람들은 맑은 바람과 맑은 달빛같은 품성을 지녔으니 청풍명월(淸風明月)..." 하며 한 지역씩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성계의 출신지인 함경도에 대해서는 이전투구(泥田鬪狗)라 했다. 말이 심하다 생각되었던지 석전경우(石田耕牛; 자갈밭을 가는 소)로 사족을 달았다.

그가 말하고자 한 이전투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진흙탕 싸움'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자어 속에 개 두 마리라는 뜻은 없다. 함경도는 겨울이 길어 먹을 것이 풍성하지도 않을뿐더러 오랑캐들이 수시로 쳐들어와 수탈을 했다. 살기 위해 치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전투구는 함경도 사람들의 강인함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개 두 마리가 서로 싸우듯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싸우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일부 언론은 벌써 야권이 대선 승리나 한 듯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YS식 정권연장이 아니라 DJ식 정권교체를

2017년, 역사는 민주당에게 정권교체의 사명을 던져 주었다. 지금까지와 다른 대한민국, 뒤로 가는 역사가 아니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정의가 넘치고 누구에게나 떳떳한 사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야권 전체에 대해 내려진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이지만 그 책임은 큰 형격인 민주당이 다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아닌 새누리당과의 이전투구를 하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 의원의 발언까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미 다 된 것처럼 삼패인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서는 지난 총선에서의 호남 유권자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친문 반문을 떠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 한사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더욱 치열함을 보여야 한다. 온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함께 역사를 뒤로 돌렸던 사람들만 아니라면 누구와도 함께 해야 한다. 국정농단 비호 주범인 새누리당은 물론 중범인 보수신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손을 잡아야 한다.

1천만 촛불민심이 바라는 정권교체는 YS식의 정권연장형 창출이 아니라 DJ식의 정권교체이다. 어찌면 지금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게 생긴 참외 밭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보수를 앞잡아버선 안된다. 그들은 지금 야권의 누수 지점을 찾고 있다. 우리끼리의 이전투구가 아니라 적과의 이전투구를 벌여야 한다.

논평

촛불민심 거스르는 '구시대 정치' 중단을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권을 못잡더라도 친문세력과 손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왜 호남에서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촛불민심에 반하는 발언이다. 온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절망한 국민들은 부패 기득권 세력 척결과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호남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는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야당 분열의 원인 제공자이고 분당의 책임자"라며 "정권교체를 못하더라도 친문과 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야당 분열의 모든 책임은 문 전 대표에게 있다는 '책임전가'이자 "죽 썰서 개 줘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언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편에서 행동하고 올려주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오기를 부리는 구시대 정치를 이제 중단하길 촉구한다. 특정후보에 대한 비토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의당은 영원히 '새누리당 2중대'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2017. 1. 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논평

위대한 '국민의 힘' 확인시킨 탄핵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민들의 힘은 위대했다. 국민의 명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 2를 훨씬 넘는 234표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국민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 국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당원·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끝까지 비호하며 탄핵반대에 나선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표결 전 "정치적, 법적,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 운운하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호소문을 돌렸다. 대통령 비호와 국정농단에 부역한 '진박' 의원이라지만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부정과 국민 기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들고 법치국가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여야는 상치받은 국민의 자존심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전폭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은 탄핵 이후의 비상 상황에 대해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2016. 12. 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남도당 12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당비·보조금·지원금 등 4억7,788만7,972원

지출, 기본경비·정치활동비 등 4천3만802원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의 지난해 12월 수입은 이월금 4억3,304만4,765원과 당비 수입 1천2만7,000원, 보조금 외 상급당부 지원금 3천477만1,021원 등 모두 4억7,788만7,972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2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 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천930만2,050원, 조직활동비 1천72만1,812원 등 모두 4천3만802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말 현재 잔액은 4억3,785만7,17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12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무소 설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김현진 차장 ☎061-287-1219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6.12.01 ~ 12.31)

구분	과 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 년 도 이 월	433,044,765	377,263,969	98,369,986		
	당 비	10,027,000	10,027,000	0		
	기탁금(중앙당예한함)	0	0	0		
	후원회 기부금	0	0	0		
	보조금(중앙당예한함)	0	0	0		
	차 입 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34,771,021	34,771,021	0	
		하급당부	0	0	0	
		계	34,771,021	34,771,021	0	
소 계	34,771,021	34,771,021	0			
그 밖의 수입	45,186	45,186	0			
합 계	477,887,972	422,107,176	98,369,986			
지출	선 거 비 용	0	0	0		
	기본경비	인 건 비	20,483,960	20,397,780	86,180	
			사무소 설치 운영비	8,818,090	8,818,090	0
		정 치 활 동 비	정 책 개 발 비	0	0	0
			조 직 활 동 비	10,721,812	10,721,812	0
			여 성 정 치 발 전 비	0	0	0
	그 밖의 경비	6,940	6,94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소 계	0	0			
합 계	40,030,802	39,944,622	86,180			
잔 액	437,857,170	382,162,554	98,283,806			

당 촛불홍보단, 12월 6일 순천·여수 거리유세 나서

송영길 단장, “헌정질서 농단 박 대통령, 이정현 대표 즉각 사퇴하라”

당 국민주권운동본부 촛불홍보단(단장 송영길)이 지난달 6일 순천, 여수 일원에서 거리홍보전에 나섰다.

홍보단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를 방문해 탄핵안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순천역, 중앙시장, 순천대, 여수시 신기동과 여서동 일대를 돌며 거리유세를 진행했다.

거리홍보에는 송영길 단장을 비롯해, 박주민, 표창원, 전현희, 오영훈, 안호영, 박찬대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송 단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그 부역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새누리당이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단은 박 대통령 퇴진 때까지 △거리홍보 △시국강연·간담회 △거점 지역 촛불집회 참여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촛불홍보단 단장과 간사에 송영길·박주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도당 상무위원회 특별 결의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성난 민심은 전국 주요 도시를 넘어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활활 타올라 ‘박 대통령 하야’, ‘최순실 긴급체포’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 등이 곳곳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반칙 대마왕’ 최순실은 몰래 예산을 주무르고, 인사와 외교-국정현안에까지 개입한 것은 물론 재벌들로부터 불법모금을 했다. 가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이자 ‘민주주의 유린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당 상무위원회는 국민들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최순실에 위탁해 수렴청정 하도록 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선언한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국정농단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황교안 내각은 총사퇴시키고, 국민이 추천한 거국내각이나 중립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안정시킬 것을 촉구한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와 관련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에 밀려 부라부라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경질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우병우-안종범 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비호에 앞장선 인물들이다. 특히 우 수석은 대통령 주변인물 관리와 인사실때 만으로도 1순위 수사 대상이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 핵심인사 5인조의 경질에 그치고 검찰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진실을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나를 직접 수사하라”고 밝혀야 한다. 그 것만이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민주주의 시스템을 살리고,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길이다. 만약 조직적인 ‘은폐’와 ‘비호’, ‘몰타기’ 시도로 이번 사태를 잠재우려 한다면 전례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6. 11. 1(화)
전남도당 상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준비된 시작²⁰₁₇



개혁합니다

정치개혁

-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
-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인론개혁

- 언론개혁 4개 법안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민생개혁 (7개 법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권정체정당의 역량을 키우며 집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심하고 나라를 맡겨도 좋을 **훌륭한 후보군**들도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설 연휴 시작 전**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것입니다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대표)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평동산단을 방문, 입주기업 대표 31명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생현안 당정회의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16일 도당-전남도 당정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맞잡은 손... 박근혜 퇴진! 정권교체! 한마음



광양·곡성·구례지역위(위원장 김재무)는 5일 신년 단배식 행사를 갖고 대선승리를 결의했다.



나주·화순지역위(위원장 신정훈)는 지난 3일 의병장 김천일 장군 사우에서 시무식을 겸한 참배행사를 갖고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여수갑지역위(위원장 송대수)는 지난 6일 시무식을 갖고 상반기 재보선과 대선 승리를 기원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3일과 4일 지역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영광 축협한우프라자에서 열린 영광 신년 인사회.



▶해남·완도·진도지역위(위원장 김영록)는 12일 진도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순천지역위(위원장 조종훈)는 지난 4일 순천시내 음식점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당원화합과 대선 승리를 기원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위원장 박병중)는 지난달 27일 종무식을 겸한 신년 인사를 개최했다.